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천 규 승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1. 모의테스트 실시 배경 및 목적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을 통해 경제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해주는 생존도구이다.¹⁾ OECD는 금융지식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해도, 위성 항법장치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권고한다. 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부채 확대, 소비성 대출 급증, 신용 및 부채 관리 미숙, 전자금융 사기 피해 증가 등으로 가계 문제가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금융수단이 구조적으로 융·복합화하는 복잡한 금융환경의 진전으로 금융 관련 의사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금융 리스크의 가계이전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융교육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미흡하다.

교육당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중학교 『사회』 교과에 한 단원을 개인 재무관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편제한데 이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정 『경제』 교과에 한 단원을 금융생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학교 금융교육은 교육과정에서의 비중도 미흡하고 이론 위주의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 등 학교 밖의 교육 지원 시스템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단편적인 이벤트 제공에 그치는 실정이다.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²⁾ 어떤 영역과 분야의 금융이해력이 부족한지 구체적

1) 천규승,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학회, 2010. 1.

2)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4/2010051401532.html

으로 파악하여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활용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등 복합적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합리적 태도와 습관을 미래 지향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육담당자에게는 교육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교육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정책당국자에게는 금융교육 정책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생활에 관한 체계적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는 기성사회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적 측면의 적정성, 활용능력, 태도 및 행동의 숙성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적 금융교육 체계화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금융교육 내용 표준 및 학교 급별 성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구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공통기본학습과정이 마무리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모의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학교 금융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금융이해력 테스트 경험

1) 우리나라의 경험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2003년부터 매년 서울과 수도권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자금관리, 지출·신용, 저축·투자 등 4개 하위영역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2000년에 개발된 미국 점프스타트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³⁾을 금융시장 환경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우리 청소년의 금융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이해력의 질적 구성 등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영리단체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금융영역별 자가진단이 가능한 금융이해력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 미국의 경험

점프스타트 연합은 1997년 이후(2000년부터는 격년) 공립 고등학교 3학년(12학년) 대상의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31개 객관식 시험 문항과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8개 설문 문항으로 이해력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금융이해력 수준은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백악관과 재무성, 주 정부 등 정책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저하되고,

3) Jump\$tart Financial Literacy Quiz는 부록 3 참조.

과락(평균점수 60점미만) 학생의 비율도 1997년의 44.2%에서 2008년에는 73.9%로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한 것도 소득 수준이나 교육,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지난 10여 년 간의 금융이해력 저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⁵⁾ 오바마 행정부의 ‘팀 가이트너(Tim Geithner)’ 재무장관은 금융이해력의 저하 현상에 대해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의 개발 및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급자 주도의 교육이 진행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⁶⁾ 점프스타트는 savingadvice.com 사이트(신용, 저축, 소비 등 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를 통해 무료 온라인 금융이해력 테스트도 실시하고 있다.⁷⁾

〈표 1〉 점프스타트의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연도	1997	2000	2002	2004	2006	2008
평균점수	57.3	51.9	50.2	52.3	52.4	48.3
과락율	44.2	—	—	—	—	73.9

자료: Lewis Mandell, THE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MERICAN ADULTS 재구성.

한편 미 재무성은 점프스타트(Jump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Junior Achievement USA, 전국경제교육위원회(NCEE),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등 민·관의 주요 금융교육 관련 기관은 합동으로, 개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전국 고교생 대상 금융역량 도전 대회(National Financial Literacy Challenge)를 실시하고 있다.⁸⁾ 이는 「예산 등 금융계획», 「저축, 투자», 「신용관리», 「기타 중요한 금융 활용 능력」 등 4개 영역에 걸쳐 학교 교과 내용에서 추출한 30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테스트인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금융관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우수 교·강사에게도 인증서를 수여하여 학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금융교육을 채택할 동기를 부여

4) Lewis Mandell, THE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MERICAN ADULTS: Result of the 2008 National Jump\$tart Coalition Survey of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Students by Lewis Mandell, *Institute For the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09.
<http://www.jumpstart.org/assets/files/2008SurveyBook.pdf>

5) <http://www.jumpstart.org/survey.html>

6) ‘Washington Tests High School Financial Literacy’, Tim Geithner, 2010. 9.
<http://www.webcpa.com/news/Washington-Tests-High-School-Financial-Literacy-55558-1.html?st=RSS>

7) Jump\$tart.org produced a 2006 Financial Literacy test for high school seniors who averaged 52.4% correct answers. This quiz has been taken by 18800 people with the average person earning \$19(at 4. october. 2010).
<http://www.savingadvice.com/tools/quizzes/jumpstart-financial-literacy.html>

8) http://www.challenge.treas.gov/National_Financial_Capability_Challenge_Flier_Spring2011.pdf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4만여 명이 응모하여 상위 20%에 해당하는 만 천여 명에게 미 재무성 인증 상장을 교부하였으며, 만점을 받은 지역 대표자에게는 부모 동반 워싱턴 방문 경비와 대학 장학금 지원하였다. 2009년 가을에는 전미 50개 주에서 7만 6천여 명의 학생과 2천 5백여 명의 교·강사가, 2010년 봄에는 8만 7천여 명의 학생과 2천 8백여 명의 교·강사가 응모하는 등 참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 재무성은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서도 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집합 시험 형태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지원(장학금 및 상장) 등 비영리교육 단체, 학교 밖 금융교육 강사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3) 일본의 경험

일본은 금융청,⁹⁾ 일본은행,¹⁰⁾ 금융홍보중앙위원회¹¹⁾를 비롯한 금융 관련 각 업계 단체, 소비자 단체, 비정부기구가 금융교육 교재 개발, 사이트 운영, 학교 교육 지원 등 금융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금융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 대안을 강구하려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0년 사립대학인 주오대학교의 금융시스템연구소가 증권투자 내용 중심으로 실시한 금융이해력 테스트¹²⁾가 거의 유일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투자리스크 허용도나 금융자산에 관한 이해도, 투자에 관한 적극성 등 지식, 경험, 의욕에 관한 이해력을 온라인으로 검증하여, 투자자의 투자 역량 제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비공개 유료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정도이다.¹³⁾

3. 측정 도구 및 응답자의 구성

1) 측정도구의 구성

가. 조사 방식

국민공통기본학습과정이 마무리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객관식 시험 방식의 금융이해력 테스트와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이해력을 모의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사회과 교사들에게 테스트의 목적과 취지, 응답 방법, 소요 시간 등을 사전

9) <http://www.fsa.go.jp/teach/chuukousei.html>

10) <http://www.boj.or.jp/shiru/>

11) <http://www.shiruporuto.jp/consumer/research3/2005/05enquet.html>

12) <http://www2.chuo-u.ac.jp/keizaiken/Kokai00.htm>

13) <http://www.f-literacy.co.jp/literacytest>

에 설명한 후 해당 교사 책임 하에 50분에 걸친 테스트를 실시하고, 금융이해력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난이도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으로 테스트 결과 분석하였다.

나. 조사 기간

- 문항 작성 및 검토: 2010. 7. 1~9. 10
- 테스트 실시: 2010. 9. 14~9. 17
- 자료 처리: 2010. 9. 20~10. 5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10. 10. 6~10. 25

다. 문항 설계

국내의 금융이해력 측정 경험으로부터 얻은 시사점과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선행 연구¹⁴⁾를 바탕으로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등 5개 영역에서 지식, 기능, 태도 측면의 이해력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설계하되,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골라내는 객관식 시험 문항 30개와 측정에 참여한 학생의 금융 환경 및 교육 현황, 향후 진로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 10개로 시험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계, 정부 관련기관, 연구소, 금융기관 등 금융교육 전문가 집단의 문항 검증과 사전 테스트로 금융교육에의 요구 내용, 문항의 적합성, 양적 과다, 영역간(저축·투자·신용·위기관리 등 개인 금융생활, 금융시스템 등) 이해의 편차, 배점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¹⁵⁾

구체적으로는 금융생활의 기본적 대응능력을 형성하는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에서 각각 7문항, 구체적 실천능력이 필요한 「저축과 투자」 영역에서 6문항,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각각 5문항으로 30문항의 시험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지식(10문항), 기능(9문항), 태도(11문항) 등의 이해력을 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금융생활 실행능력의 파악에 비중을 두어 지식분야에서는 기초 대응능력 수준의 문항을, 기능과 태도 분야에서는 구체적 실천능력 중심의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제하였다.

특별히 태도 분야의 경우 5점 척도의 인식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하는 한편 각 분야의 이해력 측정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골라내는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 방식을 통일하였다.

14) 중간보고 형태의 연구결과, 김정호 외,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 배경과 내용체계’ 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표준안 개발 세미나, 2010. 9.

15)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문항은 아래 URL 첨부파일의 부록 참조.

http://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14&seq_no=9072

라. 문항의 성격

<영역별 성격>

- ①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 (7문항):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자기책임, 개인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금융환경과 금융기관의 이해에 관한 내용.
- ②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 (7문항): 현금관리 영역으로서, 예산 수립과 실행, 소득원천과 소비지출 등에 관한 내용.
- ③ 저축과 투자 영역 (6문항): 자산관리의 기본원리와 저축, 투자의 종류, 자산증대와 관련된 내용.
- ④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 (5문항): 신용관리의 중요성, 대출의 종류, 부채관리의 방법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
- ⑤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 (5문항): 자산보존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위험의 종류와 위험관리방법, 보험의 기능과 종류, 은퇴 설계에 관한 내용.

<분야별 성격>

- ① 지식 분야 (10문항): 금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금융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식 정보의 이해 수준에 관한 내용.
- ② 기능 분야 (9문항): 금융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능 수준에 관한 내용.
- ③ 태도 분야 (11문항): 개개인이 주어진 금융 현실에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객관적 인식 수준에 관한 내용.

<배점(난이도)별 성격>

- ① 4점 (상: 13문항): 개인적 차원의 금융복지를 구체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
- ② 3점 (중: 14문항): 고등학생의 인지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 ③ 2점(하: 3문항): 금융생활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

<유형별 성격>

- ① 복합적 추론형 (14문항): 난이도와는 별개로 지문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석하여 정답을 추론하도록 구성.
- ② 단순지문형 (16문항): 복잡한 추론 과정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표 2〉금융이해력 모의 테스트 문항 구성 개요

성격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영역	금융과 의사결정	1, 2, 3, 4, 5, 6, 7	7
	수입과 지출관리	8, 9, 10, 11, 12, 13, 14	7
	저축과 투자	15, 16, 17, 18, 19, 20	6
	신용과 부채관리	21, 22, 23, 24, 25	5
	위험관리와 보험	26, 27, 28, 29, 30	5
분야	지식	5, 6, 7, 8, 11, 12, 16, 18, 25, 28	10
	기능	2, 3, 9, 10, 13, 17, 19, 22, 27, 30	10
	태도	1, 4, 14, 15, 20, 21, 23, 24, 26, 29	10
배점 (난이도)	4점	3, 4, 6, 10, 12, 13, 15, 17, 20, 21, 24, 26, 27	13
	3점	1, 5, 7, 9, 11, 14, 16, 18, 19, 22, 23, 25, 28, 29	14
	2점	2, 8, 30	3
유형	복합적 추론형	4, 6, 9, 13, 15, 16, 17, 18, 19, 23, 24, 25, 28, 29	14
	단순지문형	1, 2, 3, 5, 7, 8, 10, 11, 12, 14, 20, 21, 22, 26, 27, 30	16

〈표 3〉출제 분야별·배점별 문항 수

출제 분야	배점 4점	배점 3점	배점 2점	합계	배점 합계
지식	2	7	1	10	31
기능	5	3	1	9	31
태도	6	4	1	11	38
계	13	14	3	30	100

주) 배점 4점 문항은 난이도 상, 배점 3점 문항은 난이도 중, 배점 2점 문항은 난이도 하.

〈표 4〉출제 영역·측정 분야·배점(난이도)별 문항 수

출제 영역	측정 분야	배점(난이도)			계
		상	중	하	
금융과 의사결정	지식	1	2	—	3
	기능	1	—	1	2
	태도	1	1	—	2
수입과 지출관리	지식	1	1	1	3
	기능	2	1	—	3
	태도	—	1	—	1
저축과 투자	지식	—	2	—	2
	기능	1	1	—	2
	태도	2	—	—	2
신용과 부채관리	지식	—	1	—	1
	기능	—	1	—	1
	태도	2	1	—	3
위험관리와 보험	지식	—	1	—	1
	기능	1	—	1	2
	태도	1	1	—	2
계		13	14	3	30

마.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모의테스트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준에 맞추어 시험 문항의 적절성, 타당성, 난이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학교 금융교육에의 시사점을 유추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확률적 표집원리에 따르지 않고 비확률적 표집법에 의한 임의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국 고등학교의 실제 분포를 대표성 있게 표집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 45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의테스트 목적에 부합되는 고등학교의 2학년 10개 학급으로 표본을 선정한 것이다. 실제 전국 고등학교의 계열별 분포는 인문계 고교 68.0%, 실업계 32.0%로 본 조사에서는 인문계 고교생을 실제보다 10.0%정도 많게 표집하였다.

〈표 5〉 계열별 표본 학급 수 및 응답자 수

(단위: 개, 명)

	합계	인문계	실업계	
			상업계	공업계
학급 수	10	8	1	1
응답자 수	363	288	36	39

2) 응답자의 특성

응답학생은 모두 363명으로 남학생이 169명(46.5%), 여학생이 174명(53.5%)이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78.8%, 실업계가 20.7%이었다. 응답 학생들은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분야로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을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생애를 고려한 재무관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저축과 투자 영역, 신용 및 부채관리 영역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위험관리나 보험, 금융상품의 특징, 금융정보의 탐색이나 활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과목을 수강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1%(미 수강 학생 49%), 학업성적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은 60%,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은 75%, 금융을 알고 실천하기에 충분히 학교 금융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11.3%로 나타났다. 학교 금융교육이 금융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이론적이거나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관련 지식 정보의 습득 경로는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54.5%, 수업을 통한 경우는 22.6%였고, 풍부한 금융지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또한 4명 중 3명 이상이 보통예금 통장을, 절반 가까이가 정기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펀드나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은 7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사용 또는 가짜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 경험은 3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본 학생은 20%를 넘지 않았고, 27.9%의 학생은 계획해 보지 않았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 직종은 전문직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19.0%, 판매·서비스직이 14.3%, 생산기술직을 원하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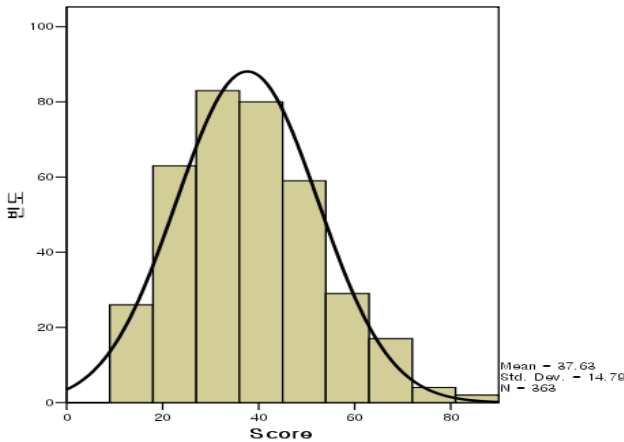
응답자의 49.9%는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2.5%는 일에 대한 대가로, 42.7%는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고 있으며, 용돈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44.4%)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46%)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모의테스트 결과 분석

1) 금융이해력의 전반적 수준

모의테스트에 응답한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매우 낮았다(평균 정답획득률은 40.1%). 점수 분포는 20점 미만부터 70점 이상까지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그림 1〉 금융이해력 점수 분포(배점 적용 시)



이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점프스타트의 테스트보다 10점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점프스타트의 문항이 대부분 단순 지문으로 이루어져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모의테스트의 문항은 복합적 상황 분석이 필요한 내용을 다수 포함함으로써 점프스타트 문항보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도록 출제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의 테스트가 점프스타트의 문항을 객관식 출제의 정형에 맞추어 우리말로 쉽게 번안한 것일 뿐 아니라 4개의 답항 중 하나의 정답을 고르게 되어 있어 정답 선택이 용이한데 비해, 모의테스트는 질적으로 다

양하고 폭넓은 이해력 검증과 더불어 응답자의 학습기회를 늘리기 위해 5개의 답항 중 하나의 정답을 고르도록 문항이 설계되어 있다는데 기인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테스트가 2003년 이후 세 번째 거의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된 것으로 문제의 내용이 이미 대중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때문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관련 내용의 학습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미국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비교 분석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6〉 점수대별 · 정답획득률대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점, %)

점수	응답자 수	비율(%)	정답획득률	응답자 수	비율(%)
20점 미만	37	10.2	20% 미만	21	5.8
20~24점	42	11.6	20~24%	49	13.5
25~29점	39	10.7	25~29%	16	4.4
30~34점	40	11.0	30~34%	54	14.9
35~39점	50	13.8	35~39%	34	9.4
40~44점	44	12.1	40~44%	58	16.0
45~49점	40	11.0	45~49%	29	8.0
50~54점	23	6.3	50~54%	44	12.1
55~59점	16	4.4	55~59%	14	3.9
60~64점	13	3.6	60~64%	21	5.8
65~69점	12	3.3	65~69%	6	1.7
70점 이상	7	1.9	70% 이상	17	4.7
합 계	363	100.0	합 계	363	100.0

2) 응답자 특성별 수준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해보면, 문항별 배점을 적용한 경우 여학생이 37.7점으로 남학생(37.6점)과 차이가 없었으나, 정답획득률 측면에서는 남학생이 49.1%로 여학생(39.1%)보다 2%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정답은 더 많이 맞혔으나, 여학생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항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상식적으로 폭넓은 이해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가정 과목을 통해 개인재무관리 등 실제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질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준다.

경제과목 수강여부는 정답획득률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항별 배점을 적용한 경우 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40.7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34.5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 경제과목 수강이 금융이해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이해력은 정답획득률 차원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인문계

40.4, 실업계 40.2), 배점을 적용한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39.0점과 32.4점). 표본의 크기가 작아(실업계 응답학생 수 75명) 추론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업계 학생의 경우 정답획득률은 인문계 학생보다 4점 이상 높은데도 배점 적용 점수가 오히려 5점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업금융 과목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업계의 금융교육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금융이해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명, 점)

합 계		성 별		경제과목		계열 별					
		남학생	여학생	수강	미수강	인문계			실업계		
						계	문과	이과	계	상업	공업
응답 학생 수	363명	189	174	185	174	286	202	84	75	36	39
배점 적용 점수	37.6점	37.6	37.7	40.7	34.5	39.0	38.3	40.7	32.4	34.1	30.8
정답 획득률	40.1%	41.1	39.1	40.8	39.4	40.4	40.6	38.7	40.2	44.8	36.1

3) 영역 · 분야별 수준

영역별로는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의 평균점수가 4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 43.0점,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 39.4점,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 30.8점으로 나타났다. 「저축과 투자」 영역은 27.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금융과 의사결정」(50.4점), 여학생의 경우에는 「신용과 부채관리」(47.2점) 영역의 이해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과목 수강 여부는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영역별 · 응답자 특성별 평균 점수

(만점: 100점, 단위: 점)

출제 영역	문항 수	평균 점수	성별		경제 과목	
			남	여	수강	미수강
금융과 의사결정	7	47.6	50.4	44.6	52.0	43.0
수입과 지출관리	7	39.4	39.4	39.5	44.1	34.7
저축과 투자	6	27.5	27.3	27.8	28.1	26.9
신용과 부채관리	5	43.0	39.1	47.2	44.8	41.3
위험관리와 보험	5	30.8	31.2	30.3	34.6	26.9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는 기능분야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44.8점으로 가장 높게, 태도분야의 이해력 수준이 3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지식분야에서, 여학생은 기능 분야에서 월등히 이해력이 높았으나, 태도분야에서는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지식분야의 평균 점수는 35.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8.4점 높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3점 높게 나타났다. 9문항으로 이루어진 기능분야의 평균 점수는 44.8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5.1점, 4.8점 높게 나타났다. 11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분야의 평균 점수는 33.3점으로 세 분야 중 가장 낮았고,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2점 높았으나,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분야별 · 응답자 특성별 평균 점수

(만점: 100점, 단위: 점)

측정분야	문항수	평균점수	성별		경제 과목	
			남	여	수강	미수강
지식	10	35.2	37.3	33.0	39.3	30.9
기능	9	44.8	42.4	47.5	47.3	42.5
태도	11	33.3	33.5	33.2	35.9	30.7

문제 유형별로는, 주어진 상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복잡한 추론 과정 없이 정답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제의 이해력이 월등히 높았고, 그 격차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문항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추론 유형에서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해력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3.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6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순 문답 유형의 경우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해력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8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경제과목이 복잡한 추론 과정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나, 복잡한 추론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과목의 교수 방법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0〉 문제 유형별 · 응시자 특성별 평균점수

(만점: 100점, 단위: 점)

문제유형	문항수	평균 점수	성별		경제 과목	
			남	여	수강	미수강
복합적 추론형	14	33.2	33.2	33.3	35.4	31.1
단순지문형	16	42.2	42.2	42.2	46.2	38.2

4) 문항별 정답률

전체 30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40.1%인 바, 금융투자를 위한 정보탐색 능력에 관한 문항(2번)의 정답률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금융수단(18번)과 위험 대비 태도(26번)에 관한 정답률이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용관리(21번)와 노후대비(29번)에 관해서도 각각 22.6%, 환전방법(13번)에 관해서는 24.0%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의 7문항 중 6문항,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의 5문항 중 3문항의 정답률은 평균을 넘었으나, 「수입과 지출관리», 「위험과 보험관리」 영역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이 더 많았고, 특히 「저축과 투자」 영역은 전 문항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의 각 1문항(13, 18, 21)과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의 2문항(26, 29번)에 관해서는 정답을 맞힌 응답자가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는 금융수단 선택을 위한 구체적 지식과 위험관리 특히 노후대비에 관한 인식, 신용관리 태도와 환전 능력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천능력이 지식·기능·태도 등의 전 분야에서 현저하게 불비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인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은 정답률이 49.8%로 5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바, 금융투자를 위한 정보 탐색 능력(2번)과 금융 사기나 금융상품 광고로부터의 피해 방지 능력(3번)에 관해서는 각각 85.7%, 60.9%로 정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여윳돈을 불리려는 경우의 금융투자 태도(1번)나 금융환경 변화 시의 자산관리 태도(4번), 순자산의 범위(5번), 금융 분쟁조정기관의 명칭(7번)에 관한 정답률은 각각 평균에 못 미치는 40%대에 머물렀고, 증권회사의 성격(6번)에 관해서는 4명 중 한 명만이 정답을 맞혔다. 금융 분쟁조정기관의 명칭에 관한 정답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2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증권회사의 성격에 관한 정답률이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서 낮게 나타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정확히 몰라 적당히 응답한 결과로 보이며, 금융의사결정을 위한 상식적 실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매스컴 등을 통한 간접교육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론된다. 이는 금융환경에 관한 실천적 지식이나 금융투자·자산관리 태도 등 금융생활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천 능력의 경우, 학교 밖 지원을 통한 간접교육이 아니라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한 학교에서의 면대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은 정답률이 5개 영역 중 중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41.8%로 나타났다. 가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범위에 관해서는 4명 중 3명 가까이가 정답을 맞혔고, 금융생활에서의 소비자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6번)와 세금을 바라보는 태도(14번)에 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정답을 선택했다. 근로소득(11번)이나 가처분 소득의 범위(12번), 지불수단 사용(6번)에 관해서는 3분의 1 가량의 학생이 정답을 선택했고, 환전 능력(13번)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해외여행이 획기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만이

〈표 11〉 문항별 정답률

(단위: %)

영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문제성격	정답률	순위	성별		경제 과목	
						남	여	수강	미수강
금융과 의사결정 (49.8%)	1*	금융투자 태도	태도(중)	42.4	12	43.9	40.8	49.2	34.5
	2	금융투자 정보 탐색 능력	기능(하)	85.7	1	84.7	86.8	89.7	81.6
	3	금융 피해방지 능력	기능(상)	60.9	4	63.0	58.6	67.0	55.2
	4*	인플레이션시의 자산관리 태도	태도(상)	49.0	9	54.5	43.1	54.6	43.1
	5*	순자산의 범위	지식(중)	41.0	13	38.1	44.3	43.2	38.5
	6*	증권회사의 성격	지식(상)	26.4	23	29.6	23.0	25.9	27.0
	7*	금융 분쟁조정기관의 명칭	지식(중)	43.0	11	52.9	32.2	50.8	35.1
수입과 지출관리 (41.8%)	8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범위	지식(하)	73.3	2	74.6	71.8	80.5	64.9
	9	소비자권리 구현 능력	기능(중)	53.4	6	49.2	58.0	61.1	46.0
	10*	지불수단 사용 능력	기능(상)	30.3	20	26.5	34.5	28.1	32.2
	11*	근로소득의 범위	지식(중)	35.3	16	38.1	32.2	41.6	28.7
	12*	가처분 소득의 범위	지식(상)	30.6	19	35.4	25.3	38.4	22.4
	13*	환전 능력	기능(상)	24.0	26	22.8	25.3	24.9	23.0
	14	세금에 관한 태도	태도(중)	45.7	10	46.6	44.8	52.4	39.7
저축과 투자 (27.6%)	15*	이자에 관한 인식	태도(상)	25.3	24	29.6	20.7	27.0	22.4
	16	방카슈랑스의 개념	지식(중)	29.2	22	26.5	32.2	29.7	28.7
	17	은행 예·적금 분석능력	기능(상)	30.0	21	28.0	32.2	29.7	31.0
	18*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금융수단	지식(중)	16.5	29	16.9	16.1	17.8	15.5
	19	개인 금융자산 분석능력	기능(중)	33.1	17	32.3	33.9	32.4	33.9
	20	투자의 원리에 관한 인식	태도(상)	31.4	18	30.2	32.8	32.4	30.5
신용과 부채관리 (43.8%)	21*	신용등급 관리에 관한 태도	태도(상)	22.6	27	20.1	25.3	22.7	23.0
	22	대부업체 이용 능력	기능(중)	51.2	7	41.8	61.5	53.0	50.0
	23	대출에 관한 태도	태도(중)	55.1	5	49.7	60.9	57.8	52.3
	24*	지렛대(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인식	태도(상)	38.8	15	37.0	40.8	39.5	38.5
	25	채무조정제도의 특성	지식(중)	51.2	7	49.7	52.9	55.1	47.1
위험관리 와 보험 (35.4%)	26*	위험 대비 태도	태도(상)	16.5	29	19.0	13.8	17.8	14.9
	27	보험 활용 능력	기능(상)	39.9	14	40.2	39.7	48.1	31.6
	28*	사회보험의 범위	지식(중)	25.3	24	30.7	19.5	32.4	17.8
	29*	노후대비 시점에 관한 인식	태도(중)	22.6	27	20.6	24.7	23.8	21.8
	30	노후대비 방안 선택 능력	기능(하)	73.0	3	64.6	82.2	73.5	72.4

주 1) 하이라이트로 강조된 문항은 30문항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정답률.

주 2) * 표시 문항은 영역별 평균보다 낮은 정답률.

주 3) 30문항 전체 평균 정답률은 40.1%.

정답을 맞혔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7문항 중 6문항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변동지출이나 근로소득, 가처분 소득의 범위에 관한 지식과 세금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의 정답률이 15% 가량 높았으나, 여학생에게는 경제과목 수강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비자권리 구현 능력, 지불수단 사용 능력, 환전 능력 등 금융생활에 필요한 실천 능력에 관해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았고, 변동지출이나 근로소득, 가처분 소득의 범위 등의 지식과 세금에 관한 태도 측면에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금융생활 실천 능력에 관한 내용도 남·여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식분야의 이해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과 투자」는 금융생활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기본 영역으로 이들 영역의 정보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파생금융 상품 등 금융수단 역시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고, 정답률 역시 평균 27.6%로 5개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자산 분석능력(19번, 33.1%), 투자 원리(20번, 31.4%), 은행 예·적금 현황 분석(17번, 30.0%)이나 방카슈랑스의 개념(16번, 29.2%)에 관한 정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금융이해력의 기초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던 목돈 만들기(18번, 16.5%)의 정답률은 30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자에 관한 인식(15번, 25.3%)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의 개념, 예·적금 현황 및 개인금융자산 분석능력, 투자 원리에 관한 인식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가정 과목을 통해 기초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예·적금 현황 및 개인금융자산 분석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금융생활에서의 비중이 비추어 볼 때 저축·투자 영역의 교육 역시 금융기관 등 학교 밖에서의 간접적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여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목의 보완을 통해 기초 개념을 이해시키고, 특활 등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통해 실천 능력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의 경우 응답자 20명 중 한 명 정도만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낮았다. 평균 정답률은 43.8%로 5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출에 관한 태도(23번)에의 정답률은 55.1%로 영역 평균보다 11%가 넘게 나타났고, 대부업체 이용 능력(22번)이나 채무조정제도의 특성(25번)에 관해서도 정답을 맞힌 학생이 절반을 상회했다. 반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 교육되고 있는 신용등급 관리 태도(21번)의 경우 22.6%만이 정답을 맞혔다. 또한 지렛대 효과(24번)에 관한 인식률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분야의 5개 문항 모두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았으며, 특히 대부업체 이용 능력과 대출 시의 합리적 태도에 관한 정답률은 남학생보다 10%를 상회했다. 경제과목 수강 학생의 정답률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신용등급 관리태도에 관해서는 오히려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가계 생활이 저축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신용구매, 할부금융을 비롯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각종 채무조정제도의 도입 등 점차 빛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력 수준이 낮게 나타난 신용관리 부문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고도의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인 「위험관리와 부채」 영역은 정답률이 5개 영역 중 4위인 35.4%로 나타났다. 위험대비 태도(26번)에 관해서는 6명 중 1명만이, 노후대비 시점(29번)에 관해서는 5명 중 1명꼴로 정답을 맞혔다. 노후대비 방안(30번)에 관해서는 4명 중 3명이 정답을 맞혔다. 적합한 보험의 선택이나 해약 등 개인 보험활용 능력(27번)에 관해서는 40% 가까운 응답자가 정답을 맞혔으나, 사회보험(28번)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노후대비 방안에 관해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았으나, 그 밖의 문항은 모두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았으며, 특히 사회보험에 관해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보다 15%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대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었으나, 실제 대비 시점에 관한 인식은 부족했고, 개인보험보다는 사회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대비와 보험에 관한 실천적 이해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점(난이도)별로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미미하게나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난이도가 높은 13문항 중 금융피해 방지(3번), 인플레이션 시의 자산관리(4번) 등 2문항은 정답률이 비교적 높았고, 난이도가 보통인 14문항 중 방카슈랑스(16번), 저축·투자수단(18번), 개인 금융자산(19번), 보험 활용능력(27번), 사회보험(28번), 노후대비 시점(29번) 등 6문항은 예상대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난이도가 낮은 3문항은 모두 예상대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배점(난이도)별·응시자 특성별 정답획득률

(단위: %)

배점 (난이도)	문항 수	평균 정답률	성별		경제 과목	
			남	여	수강	미수강
4점(상)	13	29.7	30.2	29.1	31.5	27.9
3점(중)	14	41.8	41.5	42.2	46.3	37.2
2점(하)	3	77.3	74.6	80.3	81.3	73.0

결론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금융의사결정이나 수입과 지출관리 등 금융생활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비추어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 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교과 학습주제로 설정되어 있는 금융부문의 학교교육이 기초 이론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금융생활에 필요한 실천적 능력의 배양은 학교 밖에서의 지원이나 매스컴 등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학교 「사회」 과목에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 단원 포함되어 있으나 학기말 고사 이후에 수업이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2009년 교육과정에는 「경제」 과목에 금융생활 관련 단원이 보완되었으나 이는 선택 과목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우리의 학교 금융교육은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실천적 정보의 전달이나 기능·태도의 함양이 성별, 계열별 구분 없이 학교 밖에서의 지원이 아닌 정규수업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대폭적 개편과 교육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5. 요약 및 시사점

금융이해력 측정은 측정 대상자 본인의 금융시스템에 관한 지식, 금융 거래와 자산 형성에 필요한 실천 능력, 대응 태도 등을 되돌아보게 하여, 개인 차원의 금융적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금융이해력 숙성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으로 금융교육 체계화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금융생활에 관한 체계적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우므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금융생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좌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2003년 이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설문조사해 왔으나, 사용된 문항이 2000년에 개발된 미국 점프스타트의 금융이해력 테스트 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고, 난이도도 구분되지 않아 금융이해력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다.

미국은 1997년 이후 점프스타트에서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이해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불어지고 있는 가계 금융 문제에 관해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의 개발 및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급자 주도 교육이 진행된 까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일부 영리법인의 중심의 유료 금융이해력 테스트 이외에는 금융이해력 테스트 경험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금융이해력 측정 경험과 금융교육 내용체계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모의테스트를 시행하여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유추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학교 금융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의 2학년 10개 학급, 363명으로 표본을 선정(인문계 8개 학급 288명, 상업계 1개 학급 36명, 공업계 1개 학급 39명)하였고,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등 5개 영역에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묻는 객관식 시험 문항 30개와 응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 10개로 모의테스트 문항을 구성하고, 난이도를 3단계로 나누어 금융이해력을 추정하였다.

모의테스트에 응답한 고교생들의 점수는 비교적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평균 정답률은 40.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배점을 적용한 점수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기술·가정 과목을 통해 개인재무관리 등 실제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대응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이 기능적 측면에서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과목 수강은 금융이해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을 전제로 교육받는 실업계 학생의 금융이해력은 인문계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상업계의 경우 정답획득률이 인문계 학생보다 4점 이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점 적용 점수가 오히려 5점 가까이 낮게 나타나 상업금융 등 상업계의 금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로는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의 평균점수가 4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 43.0점, 「수입과 지출」 영역 39.4점,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 30.8점에 이어, 「저축과 투자」 영역이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금융과 의사결정」, 여학생은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각 50.4점, 47.2점).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의 경우 상식적 실천 능력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을 통한 간접교육이 영향을 미쳐 남·여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수입과 지출」 영역에서는 금융생활 실천능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가정 과목의 영향으로 여학생은 경제과목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남학생은 경제과목 수강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저축과 투자」 영역에서는 응답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수는 다섯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험관리와 부채」 영역에는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고, 점수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는 기능분야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44.8점으로 가장 높게, 태도분야에서는 3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지식분야에서, 여학생은 기능 분야에서 5점 가까이 이해력이 높게 나타났고, 태도분야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유형별로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해력보다는 단순한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이해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격차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컸다. 그러나 남·여 간에는 별다른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의 경우에는 미미하게나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측정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시사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도,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보험 등의 영역이나 지식·기능·태도, 또는 성별, 계열별, 경제과목 수강여부 등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질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므로, 학교와 교육당국의 입체적이고도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금융생활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 내용을 재배치하고, 선택적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게 생활이 저축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가게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별, 계열별 구분 없이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위험과 보험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고도의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실천역량에 더하여 지식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학습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을 전제로 교육받는 실업계 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면적 교육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한 학교에서의 면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금융 지원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자료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대상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못지않게 학교나 교육당국의 기능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금융생활 실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관련 학습 결과가 대학 입시의 내신 성적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관심 및 집중도 저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방식과 학습자료를 개발·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교육 당국과 금융단체 등 교육 지원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은 공동으로 이제까지 실시된 금융이해력 테스트나 모의테스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적 차원의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각 층의 금융이해력을 지속적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위에 금융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교육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온라인 무료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용자, 「싱크머니 금융교육 평가 연구」, 전국YWCA연합회, 2010. 3.

김정호 외,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 배경과 내용체계', 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표준안 개발 세미나, 2010. 9.

최현자, 『2009년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결과』, 금융감독원, 2009. 10.

천규승,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학회, 2010. 1.

Lewis Mandell, THE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MERICAN ADULTS: Result of the 2008 National Jump\$tart Coalition Survey of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Students, *Institute For the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09, <http://www.jumpstart.org/assets/files/2008SurveyBook.pdf>.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4/2010051401532.html(조선일보 맛있는 교육 사이트).

<http://www.boj.or.jp/shiru/>(일본은행, 경제교육 사이트).

<http://challenge.treas.gov/>(미국 재무성, 전국 고교생 대상 금융역량 도전대회 홈페이지).

<http://www2.chuo-u.ac.jp/keizaiken/Kokai00.htm>(일본 주오대학 경제연구소 사이트).

<http://www.jumpstart.org/survey.html>(미국 점프스타트, 고등학생 금융이해력테스트 결과보고 사이트).

<https://www.f-literacy.co.jp/literacytest>(일본 금융리터러시연구소, 금융리터러시 검정 사이트).

<http://www.fsa.go.jp/teach/chuukousei.html>(일본 금융청, 중고생 경제교육 사이트).

http://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14&seq_no=9072(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 사이트).

<http://www.savingadvice.com/tools/quizzes/jumpstart-financial-literacy.html>(미국 점프스타트 출제 온라인 금융이해력 테스트 사이트).

<http://www.shiruporuto.jp/consumer/research3/2005/05enquet.html>(일본 금융홍보중앙위원회, 금융교육 사이트).

<http://www.webcpa.com/news/Washington-Tests-High-School-Financial-Literacy-55558-1.html?st=RSS>(미국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관련 사이트).